

목어

바삭바삭한 돼지껍질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이 돼지라 하면 머리동절해 할지 모른다. 원숭이도 있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여기에 현대의학은 돼지 쪽에 편을 든다. 이유는 사람에게 장 기이식을 할 때 돼지의 장기를 쓰면 부작용도 적을 뿐더러 사이즈도 어지간히 맞아 앞으로 이용 가치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나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아버지들의 아버지>에는 유인원과 인류 사이의 연결고리에 돼지를 끼어 넣는 기발함을 보여준다. 한 고고학자가 원숭이 대신 돼지를 인류 조상에 편입시키려 사건을 꾸미지만 결국은 조 작업이 밝혀진다는 것인데, 소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도 '혹시 돼지가...'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한다.

돼지는 불결하다는 일반 상식과는 달리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미각에 있어서도 최고급인 것은 동물인데 어쩌다 인간들 손에 걸러지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돼지 주위를 깨끗이 청소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에 게 주려고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도 않는다.

프랑스 요리에서 가장 맛있고 값비싼 요리의 재료, 송로버섯(truffle)은 돼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찾을 길이 없다. 개보다 후각이 더 발달한 돼지는 천하일미 송로버섯의 냄새만 맡고도 달려가 찾아낸다. 하지만 천하일미가 돼지치지가 될 수 없는 일.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버섯을 돼지로 부터 갈취하게 된다.

소와 마찬가지로 돼지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똥방 바치는 동물이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돼지껍질 튀김이 간식용으로 날마다 인기를 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테이토칩보다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데다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니 인기 기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불이 날 대량수요에 맞추어 돼지껍질집을 만들려면 앞으로 돼지가 얼마나 죽어 나가야 할까.

옛날 조선 부자 가운데 고등어 껍질 구워서 삼 사먹는 것을 즐기다 3년도 못돼 재산을 거덜내고 만석꾼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어찌 되었거나 돼지들에게 새로운 수난이 시작되고 있다.

김경자(자연론인·본지 논설위원)

감사 한번도 없어... 감독 소홀

조계사 신협 횡령사건 '파문'

조계사 신협 직원의 고객예치금 횡령사건은 지난 7일 검찰로 넘겨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액이 얼마고, 피해자들이 주식 및 구권화폐 이외에 따로 은닉해 놓은 돈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렇게 큰 돈을 과연 송석운과 장자서 횡령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 않고 있다. 조계사 마저도 이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송과장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뿐이다. 하지만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검찰 수사나 마무리돼야만 사건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경위

조계사 신협 자체 감사결과 송석운 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1년이 넘게 50억이 넘는 송과장이 지니고 있게 함으로써 신협과 송과장 간의 권력이 송과장에게 이양돼 있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심지어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법인 등기부 등본상 이사장이 전 주지 현근수님으로 돼 있다는 사실조차

질러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신협 임원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만 떼주고 모든 업무를 송과장에게 맡겼고, 송과장은 지홍수님이 '3년 이상된 조합인'이라는 이사장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 송과장이 이를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물어놓았던 것이다. 또한 비전문가가 운영권을 맡았다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사는 마땅히 책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조계사가 신협을 인수한 때가 종단사태 직후여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못했고, 또 이후 실수된 조계사의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 사할 업무에만 집중하다보니 신협에 대한 정비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나

금융관계자들은 직원들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금융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만큼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필연적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이 넘게 횡령이 저

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48억의 손실분을 메울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파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고직후 일주일간 감사를 발인 신협 중앙회의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중요하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된 신협 중앙회의 보고서에 회생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 들어있다면 금융감독원은 조계사 신협에 대한 경영지도에 들어가게 된다.

작년 6월부터 예치금 빼내 과장 맘대로 이사장 직인 사용 '수십억 횡령 혼자서' 의문 모든 거래자 원리금 보호

경영지도는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합공사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예금보합공사에서 파견된 인사가 업무를 관장하며 실사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신협 임원진들의 권한은 정지된다. 그리고 실사에 따른 최종판단이 회생불능으로 모아지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송·조과장 두 사람의 은닉 재산이 밝혀지고 손실액 48억원을 충당할 수 있는 돈이 상당부분 확보되거나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계사측에서도 이 경우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일 현재까지 신협 중앙회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계사 신협의 앞날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계사 신협이 파산할 지 아니냐는 점에



◇간판내린 조계사 신협. 조계사 신협은 사고직후인 1일부터 대출금 관련 업무외에 모든 업무를 중단했다.

●예금자 어떻게 되나

조계사 신협의 예금자들은 예금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협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라도 95년 제정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액 일체를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계사 신협은 예금보합공사의 예금보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제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출자금, 예탁금, 적금)을 보호받는다. 현재 조계사 신협의 경우 공제상품은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거래자들이 예금을 보호받겠다고 보면 된다.

다만 98년 8월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한 예금 중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원금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2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지급절차는 신협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금보합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되며,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 받으면 된다. 따라서 현재 예탁금을 찾는 것은 물론 실사가 끝나고 최종판단이 내려지기 까지 걸리는 동안 2~4개월 내에 예금을 인출할 수는 없다.

예금보합공사가 예금자들의 예금을 대신 지급할 경우 예금보합공사는 일차적으로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게 된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 청구권으로, 피의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액수가 적을 경우 나머지 부족분은 책임의 대소에 따라 임직원에게 청구된다.

「사면 꼭 해야 한다」 정대스님 밝혀...가을경 새창사 기금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사면 실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정대스님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면은 꼭 해야 한다. 그래야 종단이 정상화된다. 계속 사면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면 실시 의지를 밝혔다.

정대스님은 체탈도첩당항 7~8명의 스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설득하겠다" "체탈도첩 당한 사람이 너무 많다. 시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터놓고 봐야 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사면안을 종회에서 통과해야 하는데"라며 종회에 대한 서운함도 감추지 않았다.

지난 3월 총무원이 사면을 실시하기 위해 중앙종회에 제출한 종연개정안은 현재 종연·종법 제·개정특위(종헌특위)에 계류돼 있으나, 종헌특위는 6월초 이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정대스님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가을경 새 총무원창사를 기금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조계사신협 횡령사건이 일단락되면 중앙종회와 집행부, 재가자들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창사 신속은 98년 당시 총무원장인 고산스님이 추진했으나, 종단사태로 기공식을 앞두고 중단됐다. 정대스님은 또 총무원창사 전산화를 위해 전산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예암종정 하안거 해제법어 "봄오니 여전히 풀은 푸르네"

第一句下에 獲得하면 與佛祖爲師요
第二句下에 獲得하면 與人天爲師요
第三句下에 獲得하면 自教도 不了라하니
臨濟老漢의 好介福語에 辨解作北하고
認賊爲子하니 非但 却天下人眼이요
亦乃自喪本辰命根이로다
山僧은 即不然하니
第一句下에 獲得하면 生陷地獄이요
第二句下에 獲得하면 消滅罪障이요
第三句下에 獲得하면 積福積德이요
雖然佛性나 法性佛性에 隨緣生起하니
透脫一句作麼生과 (良久)云
五更에 鐘響家林曉요 春來依舊草自青이로다
喝 一喝

第一句 아래서 깨달으면 부처님과 祖師의 스승이 되고
第二句 아래서 깨달으면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 되고
第三句 아래서 깨달으면 자기도 구하지 못한다 하니
임제 늙은이의 풀은 잡초대여 남쪽을 가리켜 북쪽이라 하고
도적을 인정하여 자식을 삼으니 天下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뿐
아니라
自己的 본래 生命도 스스로 죽임이다
山僧은 그렇지 않으니
第一句 아래서 깨달으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고
第二句 아래서 깨달으면 맑은 바람 맑은 달이요
第三句 아래서 깨달으면 부처를 죽이고 魔王을 살린다
비록 그러나 독사가 사람 몸을 휘감으며 해골이 땅에 깔렸으니
透脫한 마디는 어떠한가? (한참 묵묵한 후에 말하였다)
五更(오경)에 닭이 우니 집 앞이 밝아지고 봄이 오니 여전히 풀은 푸르네
아악·

불기 2544년 8월 14일
조계종 종정 해암

「사면 꼭 해야 한다」 정대스님 밝혀...가을경 새창사 기금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사면 실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정대스님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면은 꼭 해야 한다. 그래야 종단이 정상화된다. 계속 사면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면 실시 의지를 밝혔다.

정대스님은 체탈도첩당항 7~8명의 스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설득하겠다" "체탈도첩 당한 사람이 너무 많다. 시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터놓고 봐야 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사면안을 종회에서 통과해야 하는데"라며 종회에 대한 서운함도 감추지 않았다.

지난 3월 총무원이 사면을 실시하기 위해 중앙종회에 제출한 종연개정안은 현재 종연·종법 제·개정특위(종헌특위)에 계류돼 있으나, 종헌특위는 6월초 이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정대스님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가을경 새 총무원창사를 기금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조계사신협 횡령사건이 일단락되면 중앙종회와 집행부, 재가자들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창사 신속은 98년 당시 총무원장인 고산스님이 추진했으나, 종단사태로 기공식을 앞두고 중단됐다. 정대스님은 또 총무원창사 전산화를 위해 전산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 기사 넘쳐 '선과 21세기' 쉽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규약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논설고문: 고은
인쇄인: 김규석
인터넷: www.buddhanews.com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한국전통민속·문화대학 설립에 즈음하여 (독지가나 투자 하실분을 모십니다.)

미래에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연구, 개발, 보존해서 세계의 문화속에 우리고유의 전통민속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 세계속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국가관, 민족관이 살아있는 한국전통민속문화 대학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1. 사업내용

- 학교 전통민속, 문화대학 설립 및 전통서당(학당) 설립

2. 교육학과

- 국악 및 전통악기, 민속한의학, 한문, 서예, 전통무예, 전통춤, 전통의복등 전통문화 관련내용

3. 예상 소요경비

- 300억원

4. 학교부지 (위치)

- 학교부지 선정은 국악의 발상지인 남원, 운봉, 구례, 곡성등으로 학교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추후 독지가나 투자자 분들과 협의해 최종 학교부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대학교 설립에 뜻이 있으신 독지가 분이 학교설립에 투자 하실분을 모십니다」

◆가칭: 한국 전통민속·문화대학 및 전통서당(학당) 설립추진 준비위원회

◆설립추진준비위원장: 이학수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30번지

TEL: (063)634-7283 H·P: (019)634-7283
FAX: (063)634-1237

※ 뜻있는 독지가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농협 513148-52-061376
■우체국 400077-02-010610
예금주: 이학수

감사합니다